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방학동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65번지 132동 1호
	성명	민사운 (인)
소개의원	김동욱 시의원 (인)	
소개년월일	2017. 10.	

소개의견

청원서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의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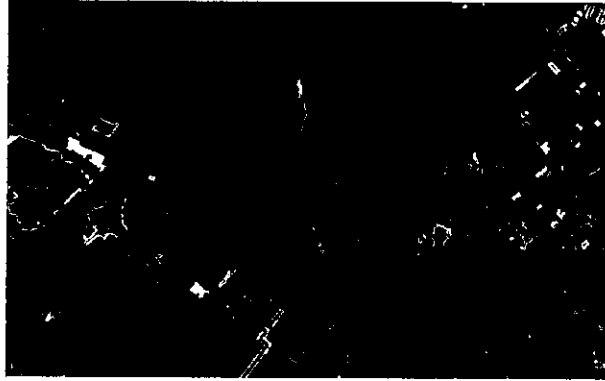
우리 도봉구민과 방학동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서울특별시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본청원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은행나무가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로(2013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지정되었고 바로 앞에 국가지정 문화재 조선왕조 제10대 임금이었던 연산군묘, 왕비였던 거창신씨묘, 의정공주 조씨묘(태종의후궁), 연산군사위 구문경묘, 연산군딸 묘가 있어 시민들에게 무료개방 함으로서 우리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자주 찾는 관광명소이자 문화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및 도봉구에서 관광명소로 시민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주차장 또는 쉼터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평가하셨으면 합니다.

그로인한 시민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는 안이한 대처에 현지 주민들은 끊임없는 민원과 서울시청에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방학동565번지 신학빌라에 무단주차와 차량 진입로가 좁고 협소하며 또한 도로포장이 파인 곳이 많아서 위험하고 비만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여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관광명소로 천년된 역사 문화유산으로 소개를 하면서 편의시설이 없는 유명무실한 명소를 보면서 서울시민들은 감탄과 실망감을 가질 겁니다.

이런 아나한 대책으로 도봉구 방학동565번지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도로소통이 위험하고 주차장 전무하여 주차 문제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안전사고 발생 및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 사항 관광명소로 인한 편의시설 주차장 문제해결이 되어 이용시민들의 편의는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민 및 서울시민 다수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명소로 인한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시의원님께서 당해 서울시민(구민)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히 관광명소로 인한 편의시설 주차장 및 하수구 문제해결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구민)의 이름으로 거듭 간곡히 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